

KINU 정책제안서 12-12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 정책제안서(12-12)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5(직통)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 정책제안서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연구책임자: 이교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임순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송정호(우석대학교 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	1
2. 주요 연구결과 .....	4
가. 권력엘리트 이론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용 .....	4
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8
다. 상호 접촉으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9
라. 신진 권력엘리트 .....	11
3. 정책제언 .....	13
4. 기대효과 .....	16



## 1. 배경 및 문제점

2011년 말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온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정일이 통치하는 동안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과부하(overload)에 걸려있었다는 점이다. 과부하 현상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체제의 특징에서 오는 것이자 직할통치를 선호하는 그의 스타일에 원인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의 통치영역이 당을 벗어나 군·정으로 확대되면서 당을 통한 수직적 정책지도 방식은 김정일이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하는 수평적 직할통치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사망 소식을 전한 북한의 관영매체는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국사에 전념하다 순직했다고 한다.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2008년 8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 자신에게 정책결정이 집중되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위주로 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고수한 것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망하기 약 3년 전 그는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해놓았는데,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런 것이었다. 『로동신문』은 그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후계자의 유일한 령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양했다. 김정은의 생일로 추정되는 2012년 1월 8일,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기록영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를 방영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찌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나날로부터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어”왔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부터 ‘인민군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도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십대 초반부터 아버지를 보좌해온 ‘준비된 후계자’임을 선전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 관영언론들이 김정은을 ‘준비된 후계자’로 선전하지만 준비되기에는 경험도 기간도 나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은 앞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정은체제가 어떤 권력구조로 귀결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국가체제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이고 수령의 혈통계승에 대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당연시한다. 따라서 현재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김정은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라고 찬양하며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걸맞게 김정은은 2011년 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2012년에 들어 당의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예상보다 빠르게 당·정·군의 최고 지위에 모두 올랐다.

문제는 이것이 명실상부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 내용과는 다른 외피에 불과한 것인지이다. 김정은이 국정의 모든 분야를 확고히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인지배체제인지, 아니면 외관상 집단지도체제는 아니지만 김정은이 어리고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당내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보아주면서 일정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지닌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김정은체제가 후자의 형태인지는 조금 더 지켜 볼 일이지만 어쨌든 관건은 권력엘리트들의 움직임이다.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구축하느냐는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후견인들을 비롯한 권력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거나 그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없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 그 동향이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핵심 변수인 것이다.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미키마우스와 록키가 등장하는 모란봉악단 공연,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대동, 경제개선과 관련된 ‘6.28 방침’ 시달 등이 전해지자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개방 또는 정책변화를 조심스레 전망하는 의견도 나왔고, 7월 갑작스럽게 발표된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에 대해서는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북한의 정책변화이든, 내부의 권력투쟁이든, 체제의 안정성이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권력엘리트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는 김정은정권이 정책변화,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려면 엘리트 내부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있느냐이고 또 하나는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갈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들이 각기 상정하는 엘리트 특성이나 엘리트 간 상호관계가 북한에 과연 존재하느냐이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분석하는 모델로는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관계모델 등이 있다. 이 모델들은 권력엘리트 상호 간 이합집산의 동기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두 가지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개방으로의 정책변화에 필요한 엘리트 조건과 여러 갈등모델들이 전제하는 권력엘리트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이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구조와 상호 네트워크에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측면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뿐 아니라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느냐인데 이는 통치이념, 권력구조, 정치엘리트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이념은 권력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권력구조는 권력행사의 장이며 정치엘리트는 권력행사의 주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엘리트이다. 통치이념이나 권력구조는 모두 정치엘리트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엘리트도 일찍부터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최고권력자와 엘리트의 관계, 또는 엘리트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엘리트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라거나 김일성·김정일과 어떤 점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다든가, 엘리트들의 특징이 고도의 중첩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엘리트의 개별 속성(attributes)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학력, 출신지역, 사회경력 등 엘리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는 권력엘리트접근방법(power elite approach)의 전형이다.

권력엘리트 접근방법의 본질은 개척자인 모스카(Gaetano Mosca), 미헬스(Robert Michels), 파레토(Vilfredo Pareto) 이래, 어느 사회나 많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들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회내 권력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 중요한 조직에서의 힘있는 개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권력엘리트를 밀즈(C. W. Mills)의 정의에 따라 주요 조직의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위법(positional approach)에 기반해 있고 실제적(actual) 권력보다는 공식적(formal) 권력에 집중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접근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정치체제가 매우 투명한 정치체제라 하더라도 그 체제에서 권력엘리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란 없다. 그래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의는 다소의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채택한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의는 꽤 협소한 것으로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한정했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엘리트 상호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점이다. 권력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외에 엘리트와 엘리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갈등모델이 초점을 맞추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며,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춰 그가 가진 지위에 따른 권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권력행사의 본질과 권력의 크기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한 조직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또 하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록 개인의 자질과 리더십, 다른 엘리트의 특질들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주지만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가 통상 정치권력이 행사되고 연계성을 갖게 되는 핵심 메카니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 엘리트집단의 특성이 폐쇄성과 응집력이라면 그런 특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호작용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응집성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다. 이는 엘리트들의 신분, 직위, 연고와 같은 속성 뿐 아니라 상호 접촉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 간의 영향력을 측정하여 행위자의 권력값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개별 속성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상호연결되어 표출하는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학력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학력분포의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출신 엘리트들이 공고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망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망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명될 때 엘리트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권력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주요 연구결과

### 가. 권력엘리트 이론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용

엘리트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이나 사

회적 부, 그리고 명성을 대중보다 더 많이 소유·행사하고 있는 소수의 계층을 일컫는다. 보통 소수인 엘리트 개념은 그 자체로 정의되기보다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 ‘대중’과 함께 파악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엘리트 층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간부(cadre, 幹部)’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엘리트 개념과 유사하다. 간부는 유형에 따라 영도(지도)간부와 일반간부로, 특성에 따라 혁명간부(revolutionary)와 기술간부(technocracy)로, 그리고 업무의 성격과 직능에 따른 간부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당 간부를 지칭하여 정치엘리트로,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사무원과 인테리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관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러한 간부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엘리트를 정의해 보면, 노동당원을 주축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정치엘리트라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당의 지배가 당 조직을 통해 사회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의 권력엘리트(power elite)란 노동당이 당원, 당세포로부터 총비서에 이르기까지 계층적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조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정치엘리트 집단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들 권력엘리트 집단은 북한에서 말하는 ‘영도핵심’과 ‘지도핵심’을 구성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노동당의 중앙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말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능별·분야별로 대표하는 12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을 핵심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 이론은 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변화의 산물, 즉 종속변수로서 취급되는 엘리트를 주요한 분석 단위로 삼고 있다. 특히 체제 전환(transformation)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권력엘리트 집단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엘리트 이론은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의 발전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오히려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의 부침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실성이 높았다. 조직화된 소수의 지배와 과두지배의 철칙 등을 강조하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나 공직과 정책의 문제를 두고 다원적 엘리트를 전제하는 근대적 엘리트 이론은 권력엘리트 집단의 등장과 변화나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권력엘리트 집단 또는 정책이나 노선 변화 및 전환을 결부지어 파악할 때, 중국·소련·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한 모델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일인지배모델’ 혹은 ‘전체주의적 모델’은 개혁·개방정책의 결정과 추진이 강력한 절대권력을 가진 1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 모델은 현재 북한연구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지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체제가 과두제적 집단지도체제 혹은 제한적 일인지배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정책의 결정과 추진을 배타적인 권한의 산물로만 볼 수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은 다양한 정책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세력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정책경향모델(policy tendency model)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의 산물로 본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보수와 전체를 개혁 노선을 반대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을 둘러싼 보수·개혁 세력 이외의 관료파와 같은 제3세력이 존재할 수 있고 김정은과 같은 최고지도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은 권력엘리트 간의 정책갈등을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구들이 이익이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북한과 같은 특수한 권력구조 하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기구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 비공식적인 개인 간의 관계나 개개인의 정책 및 이데올로기상의 차이가 경시되어 실제적인 권력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셋째, 파벌주의-권력모델(factionalism-power model)은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파벌 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 이 모델은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과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파벌의 존재나 채널을 확인할 수 없어 실증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치세력이 정치권력의 극대화만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과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항상 투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협상과 타협, 그리고 공존이 동시에 추구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넷째,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patron-client model)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후원자-추종자 간의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 관계를 통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후원자-추종자관계가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파벌주의-권력모델과 마찬가지로 후원자-추종자관계로서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수평적인 동료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이나 논증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모델은 하나의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설명력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를 가장 나은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권력엘리트 집단과 관련한 특정한 정치현상이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모델이나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적합한 이론들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소련·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 집단의 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났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은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 때문에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이 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개혁·개방의 노선 전환은 그 향배가 달랐지만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이나 노선투쟁에서 개혁파 권력엘리트들이 승리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에 대한 권력엘리트 집단 사이의 폭넓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서 개혁의 목표와 수단,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개혁파 권력엘리트들이 분화했다는 점이다. 넷째,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분화하면서 개혁파의 통합기반인 공산당 조직의 존속 여부가 체제 유지 및 붕괴의 선택지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엘리트 집단의 세대교체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중국·소련·베트남 모두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 집단의 노령화가 공통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파가 집권한 후 초기부터 공산당의 중앙권력기구를 중심으로 폭넓은 인물교체가 이루어졌다.

둘째, 기술간부 및 지식인의 등용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경제난 해결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간부, 즉 테크노크라트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개혁·개방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기술간부와 지식인 그리고 당·정 간부 출신 등의 등용이 장려되었다.

셋째,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경향이 나타났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기술간부와 지식인 그리고 당·정 간부 출신들의 비중이 커진 데 반해, 군 출신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문화대혁명의 수습과 4인방의 숙청 과정에 군부가 개입하고 국내 정치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중국의 이런 경향은 매우 두드러졌다.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추진되어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군의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군의 영향력은 축소·조정되었다.

넷째,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의 파벌정치가 확대되었다. 중국·소련·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그리고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파벌정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같은 파벌주의는 개혁 노선의 채택과 개혁의 속도 및 범위를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이해관계를 노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보수와 개혁 등 정치노선 중심의 계파보다 ‘상하이방,’ ‘칭화방,’ ‘공청단,’ ‘태자당’ 등과 같은 연고집단 중심의 파벌이 등장하였다.

다섯째, 권력엘리트 내부의 지방주의·지역주의가 강화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지방적 정치배경을 가진 특정 인사의 중앙 정계로의 진출과 불균등 발전전략의 채택 등 정치적 상징성에 따라 특정 지역이 과다 대표되는 사례가 시기별로 나타났다.

## 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북한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당 중앙위는 노동당을 비롯하여 국가기구(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 정당 및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위원 124명과 후보위원 105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면 중앙·후보위원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며, 연령대로는 70대,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 출신학교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장 많다.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권력엘리트의 고령화와 권력의 지속성, 절대 다수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세대연고, 지역연고, 학교연고, 혈통연고, 직업·장연고, 측근연고 등을 통해 본 중앙·후보위원의 네트워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1세대의 퇴조와 3·4세대의 부상,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 권력엘리트의 분야별 전문성, 권력의 응집성 등이다. 노동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는 정치국의 노령화와 기능 복원, 출신지역(평안도, 함경도) 및 출신학교(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편중,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 2·3세대의 약진, 주요 직책의 겸직과 권력의 중첩성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3·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 등의 권력기관에서 요직을 맡았었거나, 또는 맡고 있는 인물 52명을 대상으로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남성(50명)이며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은데 총 5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를 나타낸다.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가 가장 많으며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이 가장 많다.

또한 연고 및 권력(주요직책)의 중첩성, 권력의 지속성 등을 통해 보면, 특히 60대의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장성택, 김정희, 그리고 최룡해이다. 장성택, 김정희, 최룡해 등 세 인물은 연고(지연·학연·직연) 및 권력(주요직책)의 중첩성·지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두혈통,’ ‘항일빨치산 혈통’ 등의 연고로 권력의 집중성이 더 높아진 인물들이라 하겠다.

## 다. 상호 접촉으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김정은 현지도도 수행인물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엘리트들의 권력 위계와 상호관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기간과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최고인민회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 시기인 2008년 8월까지의 1시기, 김정일 와병기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김정은이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이전의 과도기인 2시기, 김정은 후계체제 천명 후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도에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의 3시기, 김정일 사후부터 2012년 7월까

지의 4시기로 구분하여 현지도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 및 각 시기별 주요 엘리트들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응집력 측면에서 보면, 1기와 2기에는 엘리트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한 김정일 직할통치가 이루어진 반면, 3기와 4기에는 김정은과 일정정도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다수의 엘리트집단이 존재하는 현재의 권력지도가 완성되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3시기와 4시기에 증가된 반면, 네트워크 집중도는 2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김정은 시대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가 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 김정은의 현지도 수행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계자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본격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김정은 이외에 장성택을 비롯하여 최룡해,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부각되었고, 이들과 여타 엘리트들 간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김정은 시대에 엘리트 간의 응집력이 보다 커졌으며, 그 구심점에는 최고지도자 1인뿐만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높은 중심성 수치를 기록한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2시기 들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급격히 부상한 인물들은 김경희,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현철해, 리명수, 김양진, 김원홍, 김명국, 주규창, 리재일, 김영일 등이다. 3시기에는 장성택과 김경희 등 혈족세력이 확고한 위치를 잡았고, 최룡해, 박도춘, 주규창, 김경옥 등이 약진하였으며, 김창섭과 문경덕도 상위 순위로 진입하였다. 김일철 등의 구군부 세력을 대신하여 리영호, 윤정린, 김영철 등의 신군부세력이 세를 얻었으며, 오일정, 최부일과 같은 소장파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 시기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대부분 3시기 네트워크 상에서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4시기는 대체로 3시기에 주요하게 등장한 엘리트들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룡해, 김원홍, 현철해 등이 특히 부상하였고, 김경희는 위세중심성이 떨어졌으며, 김영춘은 다시 순위가 상승하였다. 또한 리병삼, 리병철을 비롯하여 손철주, 박정천, 조정철, 오일정 등 군부 내의 비교적 젊은 엘리트들이 부상하였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낸 주요 엘리트들의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자면, 1시기에는 김정일 시대의 지배엘리트가 유지되고 있으며, 2시기는 과도기로서 로열패

밀리 등 최측근 세력의 권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신·구세대 엘리트가 공존하고 있다. 3시기에는 김정희, 장성택 등 로열패밀리가 중심이 된 가운데 리영호 등 신군부세력이 득세하였으며, 4시기는 역시 로열패밀리의 중심성이 유지된 가운데 민간당료 중심의 정치군인과 공안세력이 신군부 중 야전세력을 제압하였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엘리트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4시기에 현지도도를 수행한 주요 엘리트 30명의 평균 연령은 실제로는 70세 미만으로,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볼 때 5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군, 국가기관 소속별 엘리트의 위세중심성 정도도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군이나 국가기관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시기와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시화된 직후인 2시기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인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역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4시기에는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각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김정은체제 초기에 군 관련 현지도 활성화를 통한 군 계통의 장악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신진 권력엘리트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권력엘리트들은 별로 없다. 이는 2012년 4월 11일에 열린 제4차 당 대표자회와 4월 1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5차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인사로서 증명된다. 물론 장성택,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현영철, 조연준 등 권력무대에서 더욱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리영호, 우동측 등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있는 등 인물에 따라 부침은 있으나 김정은정권에서의 새로운 권력엘리트 지형으로 지적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해놓은 권력엘리트 구성을 당분간 무너뜨릴 수 없는 김정은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계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인사를 하기에는 권력승계 기간이 아직 짧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 중앙위는 이미 2010년 5월 18일 각급 당 조직들이 젊고 능력 있는 간부들을 대거 천거하고 등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시, 도, 군 지방 당 조직부 간부인사에 20~30대 간부들이 대거 추천되어 지방 조직들의 수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중앙당의 경우도 부서에 따라 많게는 70~80%까지 교체되어 2011년 10월경에 세대교체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인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이 김정은정권의 착근과 안착에서 사활적인 요인임을 감안하면 정권을 보위하고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신진 군부 인사들을 대거 발탁, 권력 핵심부에 배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정일은 2010년 4월 대장 4명을 포함한 군 장성 100명을 대거 승진시킨 데 이어 당 대표자회 전달에도 6명에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고, 상장 1명, 중장 6명, 소장 27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2011년 4월 13일에도 상장 2명, 중장 5명, 소장 38명을 승진시켰다. 1년 사이에 185명이 계급장에 별을 추가한 것인데 신진 군부 그룹들을 부상시켜 김정은의 군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자신도 2012년 2월 14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장성급 2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세대교체로 새로 임명되고 부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2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보안계통 인사들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새로 선임된 당 비서·부장 중에는 전직 고위간부 아들이나 사위 등이 많다. 급부상한 최룡해가 대표적이다. 북한에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대물림하여 권력엘리트로 편입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40~50대의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이다.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안계통의 기관을 권력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김정은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 우동측 제 1부부장 외에 김창섭 정치국장 등이 핵심 인물이다.

또한 김정은의 현지도 및 시찰을 수행하는 간부의 면면을 볼 때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중장 리두성이다. 그는 2011년 10월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을 두 차례 수행했을 뿐인데 김정은의 현지도는 자주 수행하는 새로운 인물이다. 김정은의 선전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에 임명될 때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로 미루어 김정은을 보위하기 위해

발탁했을 개연성이 있고,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군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두성 외에도 상장 조경철, 윤동현, 손철주, 박정천 등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다. 조경철은 보위사령부 사령관이라는 보도가 있으며, 손철주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원홍의 후임으로 보인다. 조직부국장과 양대 산맥인 선전부국장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이동했다. 이들 밑에 리두성, 노홍새 중장이 각각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장 군인들인 이들이 부상한 것은 김정은이 현지도 수행자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층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나가고 김정은체제의 주축이 될 집단은 30~40대의 혁명 5·6세대이다. 2010년 9월의 당 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의 전위대인 청년동맹을 통해 신진엘리트를 양성·배출하고 향후 이들이 김정은정권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2011년 2월 26일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에 전달한 당 중앙위 축하문을 통해 “청년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명칭의 행사를 연 것은 처음으로, 김정은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우리의 청년대오를 영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정의의 대오로 철통같이 다지자”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3·4세대 후견그룹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권력기반을 굳건히 구축해야 하는 김정은은 앞으로 이들 후견그룹과 김정은식 사회주의 건설을 담당할 5·6세대 신진 엘리트들의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 3. 정책제언

북한에서 김정은은 당의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북한 관영언론들의 선전처럼 ‘유일적 령도체계’ 아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갖는 의문은 김정은이 국정의 모든 분야를 확고히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봐주면서 일정한 분야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이다. 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권력엘리트들의 이합집산과 그 동향은 김정은의 권력행사와 체제의 안정성에 핵심 변수이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사명을 받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지난 7월 갑자기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북한 권력엘리트 간 권력투쟁설이 붓물을 이루었는데, 권력투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엘리트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책경향모델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권력엘리트 집단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본다. 관료정치모델은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으로 설명한다. 반면 파벌주의-권력모델은 파벌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정책갈등을 파벌 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 후원자-추종자관계모델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후원자-추종자 간의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 관계를 통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북한 권력엘리트 간 갈등을 분석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6.28 방침’과 같은 조치를 정책경향모델에서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 즉 장성택을 위주로 한 개혁파와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간 경쟁의 결과로 해석한다. 두 집단 간의 대립은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專)’의 그룹과 선군노선 같은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홍(紅)’의 그룹 간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과대성장한 군부의 막대한 경제적 기득권을 내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리영호의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은 그 전형이다. 반면 파벌주의-권력모델은 북한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이나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고 반대세력의 형성·강화를 방지·제거하며, 같은 세력내 구성원들의 결속·충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처럼 유일사상체제 10대원칙을 생활규범화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규범적인 사적 연줄망이 개인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체제의 공유를 통해 협력하는 비공식적인 파벌들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최룡해를 비롯해 장성택과 비공식적인 사적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인물들의 일정한 파벌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이 모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적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상 경력이나 측근 연고를 통해, 그리고 상호 접촉의 빈도와 그 성격을 통해 권력엘리트 간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권력엘리트 집단의 폭넓은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관료의 등용 확대,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경향,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의 파벌정치 확대, 권력엘리트 내부의 지방주의 및 지역주의 강화 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모두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노령화 문제였다. 권력엘리트들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당 정치국과 서기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들의 퇴직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덩샤오핑 시대에 60%가 넘는 당 중앙위원을 교체했다. 베트남 역시 제6차 당대회 이후 젊고 새로운 기술간부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현재 북한에서도 고위 엘리트층의 노화문제가 심각하지만 김정은 등장 이후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세대교체의 핵심은 권력엘리트들 중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기술간부, 테크노크라트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 권력엘리트들 중 다수는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들이거나 당·정 간부를 역임한 전문관료 출신이었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원들은 마오쩌둥 시대에 비해 괄목할만한 교육 수준을 가진 전문관료였다. 베트남에서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며이 정책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에 1991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많은 기술관료들과 고급지식인층이 기용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적어도 내각의 경우는 전문성이 존중받고 있고 당 기능의 복원과 더불어 당 내에서도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시기 권력엘리트 집단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관료와 지식인 그리고 당·정 간부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군 출신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어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현상이 강해진 것이다. 국내정치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국내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가 진행되고 군의 전문화가 확대되면서 군의 영향력은 축소·조정되었다. 현재 북한에

서 진행되고 있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나 최룡해의 군 총정치국장 기용 등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소련·베트남은 개혁·개방 초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서 그리고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파벌정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벌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지연·학연 그리고 기타 공통적인 조직 경험을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개혁노선의 채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도 ‘보호와 충성의 상호교환’을 바탕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의 존재 가능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개혁·개방으로의 정책변화 사례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권력엘리트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엘리트들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했는데, 이는 혁명의 지도자를 배출하거나 불균등 발전전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치 배경을 가진 특정 인사의 부침과 지역의 상징성에 따라 시기별로 특정 지역이 과다 대표된 사례가 있고 베트남에서도 도이머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남부베트남 출신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북한에서도 제3차 당 대표자회 이후 지방당 책임비서들이 중앙당으로 대거 진출했는데,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4. 기대효과

북한 관영언론들이 김정은을 ‘준비된 후계자’로 선전하지만 준비되기에는 경험도 기간도 나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김정은은 앞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은체제가 어떤 권력구조로 귀결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는 구호아래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걸맞게 김정은은 당 제1비서직과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취임하여 외관상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리고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당내 권력기반이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동안은 장성택을 비롯한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봐주는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후견인들을 비롯한 권력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도

움을 얻거나 그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없다. 권력 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은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핵심 변수이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군총참모장이 하루 아침에 전격 해임된 데서 엿볼 수 있듯, 최근 권력엘리트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도 그것을 지향하는 일단의 권력엘리트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김정은체제의 엘리트 특징,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갓 출범한 김정은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당국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참고할 자료로, 또 전문 연구주체의 하나로서 학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에 의한 북한 권력엘리트 간의 네트워크는 엘리트 간 갈등과 응집에 관한 특징의 설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내구성 전망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처럼 유일사상체제 10대원칙을 생활규범화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규범적인 사적 연줄망이 직업상 경력이나 측근 연고를 통해, 그리고 상호 접촉의 빈도와 그 성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동태나 그들의 역학관계를 정책당국이 짐작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초기 나타났던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조적 변화, 즉 앞으로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에서 권력엘리트 집단의 폭넓은 세대교체, 테크노크라트와 전문관료의 등용 확대, 권력엘리트 집단의 문민화 경향, 권력엘리트 집단 내부의 파벌정치 확대, 권력엘리트 내부의 지방주의 및 지역주의 강화 등이 심화되는지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유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